

教育·研究·休養기능의 開發

— 國立公園의 當面問題 —

金 憲 奎 (本協會 理事)

오늘날 우리나라 國立公園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는 (1)교육시설 (2)연구시설 (3)휴양시설 (4)탐방자관리문제 (5)자연보호문제 등이다. 이제 위의 다섯가지 문제를 하나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한다.

教育施設

자연은 가장 좋은 野外教室이고 바다는 영원한 公園이라고 한다. 자연속에는 배울 것이 너무도 많고 바다는 바라만 보아도 心身의 휴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으로 자연은 손상되고 있고 바다는 汚染되고 있다.

미국에는 국립공원 37개소 州立公園 50개 이상, 郡立公園(country park)·지방공원(regional park) 등 무수한 自然公園이 있고 그 중의 약 1/3의 공원경내에 自然教室(nature center)이라는 교육시설이 있다. 자연교실은 대개 간단한 2층 건물로 1층은 표본실, 2층은 교실로 되어있다.

자연교실의 利用狀況을 보면 학교버스 1臺에 40명의 어린이를 교사 2명이 인솔하고 와서 하루의 야외수업을 한다. 자연교실은 전국에 1,000여개소에 마련 되어 있고 학교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들이 이용한다. 버스가 자연교실에 도착하면 40명의 어린이를 두 반으로 分班하여 한반은 표본실에서 교장의 동식물·광물표본들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한반은 2층에 올라가 강의를 듣는다. 강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배치 돼 있는 교육담당직원이 할 경우도 있고 학교교사들도 미리 현지답사와 研修를 받은바 있으므로 교장의 自然에 대해서 강의 할 수가 있다. 50분 수업이 끝나면 1·2班이 交替되어 같은 과정을

밋는다. 약 2시간의 수업이 끝나면 공원안에 있는 피크닉그라운드로 가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갖는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특별히 마련 된 환경연구지역으로 가서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野外觀察時間을 갖는다. 야외관찰은 국민학교의 경우 5官(耳·目·口·鼻·皮膚)을 통해서 개념을 작각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植物·귀로 듣는 새소리·날아 다니는 나비·새 등의 이름도 배우고 巨木의 껍질을 만져보므로서 印象에 남도록 하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신체장애자들도 휠체어를 타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장소가 配慮돼 있고 盲人학생들을 위해서는 노끈으로 수백미터의 나무와 나무사이를 연결하여 노끈을 따라가며 나무를 만져보고 이름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은 노끈으로 幅2미터의 森林地域을 표시하고 그안에 드는 나무 이름을 조사하는 실험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00명 이상 되는 한학년 전부가 수학여행으로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시설은 全無하므로 계획적인 자연보호교육이 실시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경우 여관에서 자고 비선대나 계조암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신흥사나 구경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동안에 본 식물이나 곤충의 이름하나 제대로 배울 기회를 못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슬라이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밤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 할 수도 있으면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시설도 全無한 형편이다.

국립공원마다 야영장을 마련하고 自然教室을

지어서 야외수업을 가질 수 있도록 野外教育施設을 갖춰야 할 것이다.

成人들을 위해서는 自然保護아카데미를 自然美를 감상 할 수 있는 곳에 건축하고 자연보호와 관련 된 각종 세미나·워크숍·연수회 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西獨에서는 「문헌」과 「햄버그」에 자연보호아카데미를 세우고 있으며 큰 成果를 거둔다고 한다. 햄버그자연보존협회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에리카(Erica) 꽃으로 덮혀있는 荒野인 뤼벤브르크自然保存地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農家 4棟을 구입하여 改造한 것으로 이 곳에 와서 集會를 가지면 自然保存地區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研究施設

筆者가 미국과 유럽의 國立公園에 가본 印象으로는 미국의 국립공원은 自然保護 다음으로는 教育에 重點을 두고 유럽에서는 자연보호 다음으로 研究에 置重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증거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환경교육 담당직원이 배치 돼 있고 유럽의 국립공원에는 교육담당직원은 없어도 연구직원이 많이 배치 돼 있다. 프랑스의 국립공원에는 2~7명의 연구직원이 公園마다 배치 돼 있고 西獨의 바드스사든國立公園에는 2명의 연구직원이 배치 돼 있다. 이 公園에는 1978년과 1980년 두번 현지답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때 안내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연구책임자였기에 무엇을 연구하느냐 하고 물어 봤더니 자기는 公園內에 있는 湖水의 물고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공원의 식물상, 동물상, 곤충상 등 연구과제는 얼마던지 있다고 한다.

1975년에 스위스國立公園을 탐방하였을 때 들은 바로는 경내에 대학교수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公園에 오면 실비 정도로 宿食을 제공하는 깨끗한 숙소가 마련 돼 있고 直營하는 山莊도 하나 있다. 民營호텔은 하나뿐이지만 宿食料金を 거리에 比해서 비싸게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植民地로 있으면서 自然保護에 많은 힘을 기우리는 네덜란드의 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한가지는 外國의 學者가 연구의 目的으로 올 경우 山莊에서 1週間을 無料로 宿食을 제공하는 美風이 있다. 1979년 7월 「보글」에 있는 植物園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慶北大에서 지렁이를 연구하는 女教授 한분이 이 山莊에서 1週日 체류하면서 지렁이도 채집하고 연구하며 인도네시아의 學者들과 學問的인 交流를 가진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연구과제는 너무도 많다. 아직 동식물目録조차 없고 생태계보존문제·유전자원보존문제·멸종된 동물의 導入문제·개체수가 격감되는 동물의 보호문제 등등을 위해서 연구직원의 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지만 그러한 職位도 없고 연구비도 나올 길이 없는 실정이다. 경내에 연구자宿所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비를 배정하여 用役에 의한 연구라도 해마다 실시해야 할 것이다.

休養施設

國立公園을 設立하는 目的은 ①自然景觀을 손상하지 말고 보호하기 위하여 ②國民의 保健을 위하여 ③心身の 休養을 위하여 ④동식물의 生態 및 自然保護教育을 위하여 貢獻하기 위한 것이다.

公害와 騒音에 시달리는 都市人들이 國立公園에 가서 心身の 休養을 가지는 것은 필요 不可欠한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國立公園에는 自然을 손상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施設이 必要하다.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待避할 곳이 있어야 하고 자연을 손상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歩道가 필요하며 경사진 곳을 오르는 곳에는 통나무계단이 마련 돼야 하며 피로를 회복 할 수 있는 휴게소도 필요하다.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깨끗한 화장실이다. 담배는 휴게소에 앉아서 피우고 걸어 가면서 피우는 것은 禁物이다. 휴

지는 휴지통에 넣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公衆道德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다. 飲酒·高聲放歌는 他人의 휴양을 망치는 일인줄 알면서도 맘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유럽에서는 한가지 對策으로 公園境外에 광대한 緩衝地帶를 設定하고 거기서는 맘대로 떠들고 놀다가 일단 公園境内에 들어서면 靜肅을 지키고 小動物이 놀래거나 他人에게 방해가 되는 騒音을 내지 않고 自然을 즐기며 무엇인가 배우는 태도로 관찰도 하고 수첩에 기록도 하도록 指導하고 管理하는 것이다.

미국과 西獨에서는 말을 타고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말도 빌려주고 길도 따로 준비한 國立公園이나 自然公園이 있다. 특히 西獨의 自然公園境内에는 狩獵場이 마련 돼 있어서 狩獵을 즐기므로 休養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密林과 密林사이의 나무를 20~30m 幅으로 伐採하고 원두막같은 망대를 짓고 그위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사슴이 숲속에서 나와 건너편 密林으로 이동하는 것을 狩獵하도록 許容하는 곳도 있다. 이와같은 일은 사슴도 많고 번식도 잘 보호되는 곳이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한가지 일은 國立公園 境外에 완충지대를 設定하는 일과 自然과 어울리는 레저타운을 만들고 거기서 맘대로 즐기며 놀다가 公園안에서는 조용히 걸어 다니며 명상도 하고 自然을 배우도록 管理하는 方法을 연구 해야 할 것이다.

스키장은 가장 멋진 冬季休養施設이다. 스키야들의 天國인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豪華스러운 스키장이 록키山脈의 일부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반프」國立公園 境内에 있으며 미국·호주·뉴우지일랜드·유럽 여러나라 국립공원에는 스키장施設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雪岳山에 하루속히 스키山莊과 스키스롭을 개발하고 公開해야 할 것이다. 1週日間 스키를 즐기므로 1年동안 쌓인 피로가 말끔히 가고 추위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探訪者管理

탐방자들이 자연을 손상하지 않고 登山路를 이 탈하는 일이 없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시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되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雪岳山과 梧桐島에서는 해마다 탐방자가 너무 많이 몰려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公園管理當局으로서 盛需期에도 入場을 制限 할 方針을 세우지 않고 있다.

1975년 9월에 스위스國立公園을 탐방했을 때 경험한 일인데 車道에서 直營山莊까지 가는 步行路 兩側에 측량대와 같이 赤白으로 색칠한 말뚝을 세우고 步行路에서 이탈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管理細則을 마련하고 있었다. 步行路밖은 광활한 잔디밭인데 물모트들이 오글 오글 모여서 놓고 있었으며 接近하여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規則을 어기면서 步行路에서 이탈 할 생각도 없었고 境内의 小動物을 놀래게 하면 안된다는 公園當局의 方針에 따르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단념한 일이 있다.

1979년에 濠洲의 로얄國立公園을 탐방했을 때는 공원入口에서 쓰레기를 담은 종이주머니를 하나씩 주고 있었는데 경내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과자를 먹고 난후 휴지나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燒却場에 버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므로 청소부의 일손을 덜어 주고 공원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도 많은 案内者가 있어서 단체나 外國人탐방자를 안내하고 있다. 案内者養成도 管理행정 의 하나로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教養如何에 따라 탐방자를 不快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유쾌한 탐방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탐방자안내소를 짓고 거기에는 공원안내도는 물론 캠프렐을 준비해서 탐방자들이 들고 다니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암벽등반을 하다가 事故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벽등반을 지도 할 직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단 사고가 나면 直刻 動員 될수 있는 救助隊도 조직 돼 있어야 할 것이다.

自然保護

국립공원設立의 첫째되는 目的이 自然保護에 있는만큼 公園管理當局은 이에 대한 뚜렷한 目標와 方針을 公園別로 세우고 施行해야 될 것이다.

自然保護는 人生을 위해서 자연을 좋은 상태로 保存하고 황폐되지 않도록 維持하며 현명하게 利用하는 것이다. 人生을 위해서라는 말은 건강한 生活·衣食住의 자원·休養·教育·研究 나아가서는 美的鑑賞 등을 뜻한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마련한 世界自然保存戰略에 따르면 自然保存의 3大目標는 다음과 같다.

- ① 基本的인 生態過程과 扶養體系의 維持
- ② 多様な 遺傳資源의 保存
- ③ 種과 生態系의 持續的인 利用 등이다.

①은 人間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生命을 支持하는 生態的 過程을 維持하기 위한 것이다.

②는 自然보존·농축업발전·과학 및 醫學發展·기술혁신·生物資源을 利用하는 모든 産業

의 安全을 위하여 지구상에 現存하는 모든 유전 資源을 保全하기 위한 것이다.

③은 現代人과 未來世代를 위해서 種과 生態系의 지속적인 利用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公園境內에서의 植物의 採取나 야생동물의 密獵은 根絶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雪岳山國立公園에서는 아직도 곰이 獵의 대상이 되어 있고 高山植物中에도 희귀종인 「에델바이스」가 무참하게 채취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俗離山國立公園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망개나무껍질을 漢方에 쓰기 위해서 몰래 벗겨가므로 枯木이 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유치원에서부터 국민·중·고등학교까지 自然保護教育에 힘써야하겠고 成人들은 法律로서 다스리는 대책이 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附言하고 싶은 것은 郡마다 郡立自然公園을 하루속히 지정하고 境內에 600명정도를 收容할 수 있는 野營學校를 세우고 國立公園協會에서 用役管理하도록 하여 各級학교에서 한 학급씩 와서 3泊4日의 自然保護教育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提言이다.

